

## 새로운 《출판저널》에 거는 기대

김정란 | 시인 · 삼지대 불문과 교수

갈수록 출판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신없이 쏟아져나오는 책들 가운데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독자들의 입장으로는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출판 생산자와 소비자 가운데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중간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출판저널》은 전문적인 '서평지'로서 중간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서평'을 취급하는 매체에는 일간종합지, 시사주간지, 전문월간지, 전문 계간지 등이 있다. 일간지와 주간지가 그때그때 빠른 정보를 보도하고, 간단한 저널적 비평을 곁들이는 데 반해서, 전문지는 보다 심도 있는 비평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출판저널》은 이 저널적 매체와 전문적 매체 사이에 위치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따라서 《출판저널》이 격주 발행 기간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독특한 입장은 유리할 수도 있지만,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저널적 특성과 전문적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특권적이지만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면이 마냥 허용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적 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듯하다.

이제 《출판저널》이 판형도 바꾸고, 편집 체제도 일신한다고 한다. 나는 《출판저널》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을 무화시키지 말고, 그 위에 덧쌓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구독률을 신경 써서 품위를 해치지 않기 바란다.

그러나 몇가지 바라는 것은 있다. 《출판저널》이 그 특성상 다른 매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판 제도나 관행, 유통, 그리고 정부의 시책 등과 같은 출판의 물적 토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획을 꾸준히 다루어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출판 환경은 대단히 열악하며, 출판물의 질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난마처럼 얽혀 있다. 《출판저널》은 자신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인 정보처리 자세도 주문하고 싶다. 그동안 《출판저널》은 대체로 점잖은 단색화 톤에, 밀고 당기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다. 공간적으로도 입체감이 부족했고, 방점을 찍어주는 적극적 편집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저널적 특성은 더욱 확실하게, 더욱 매력적으로(나는 저널적 특성이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저널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문적 특성은 더욱 깊게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콤팩트한 방식으로 글을 쓸 줄 아는 필자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필자들은 대체로 수사만 화려한 수필가형이거나, 아니면 맛 없는 논문식 글쓰기를 하는 학자형으로 나뉘어진다. 양자의 덕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필자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처럼 변화하기로 결정했다면,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고유의 영역을 개척하기 바란다. 형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씨앗을 씨기 위해 과육이 있는 것이지, 과육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 변화는 마인드의 변화를 담지해야만 분명한 성과로 나타난다. 헌 술은 아무리 멋진 새 잔에 따르더라도, 헌 술이다. 중요한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왜 갈아입고 싶은지, 어떤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정진을 빈다.

통권 제262호 | 1999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서정희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 - 31 - 2826477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